

한국문화교류 소식

25호 2017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 ICKC 해외역사문화탐방기]

고려인이 가장 많은 나라 우즈베키스탄 탐방기

지난 8월 8일(화)~8월 14일(일), ICKC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컵 아시아태권도대회'에 참석하여 태권도의 국제적 교류를 진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해외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ICKC 총재인 조정원 총재 및 세계태권도연맹 강석재 비서실장 그리고 박익근 ICKC 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위원 9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 이번 해외 역사문화탐방에서, ICKC의 구성원들은 태권도대회에 참석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한편, 현지 고려인 마을을 방문하여 고려인 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등 다채롭고 뜻 깊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본 탐방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의의를 되새기기 위하여 본 탐방에 함께 참여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의 탐방기를 수록한다. 생생한 현장 소식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까지 아우르고 있는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조춘연 대표 세무사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O'zbekiston Respublikasi)의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2배이며, 인구는 약 3,2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과거 유라시아 횡단길, 실크로드의 중심지(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서안을 거쳐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긴 교역로의 중간에 우즈베키스탄이 위치함)로서, 동서양을 잇는 문화와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금·우라늄·가스·텅스텐·동·몰리브덴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세계적인 면화생산국으로,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조 춘 연

정일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고려인 강제이주 기념행사가 시작된 것은 1997년이다.

193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애환을 되돌아보고,
체험하는 뜻에서 “회상의 열차” 행사를 9박 10일 동안,
60년 전에 고려인들이 갔었던 그 슬픔의 기차길을,
그 분들의 혼을 달래며 행사를 가졌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근 독립국가연합(CIS, 1991년
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 국가들을 말함) 국
가 중 대외 경제의존도가 낮아 2008년 말 세계적
인 외환위기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의 러시아
등 CIS국가 경제침체시기에도 양호한 거시경제지
표를 유지하였다. 이는 초대 대통령 카리모프(Islom
Abdugʻaniyevich Karimov, 1938.1.30.~2016.9.2.)의 “새집
을 짓기 전에는 헌집을 헐지 말라”는 안정적인고 점
진적인 정책의 추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리모프 전 대통령(1991.9.1. 독립 선언 이후
25년간 통치하고 2016년 급성뇌출혈로 78세에 서거)은 러
시아와 서방사이에서 실리주의(實利主義) 외교노선
과 점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통하여 국가체제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특히 한국을 국가발전의 롤 모
델로 삼아 재임기간 중 한국을 8차례 방한하는 등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
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친한(親韓) 성향을 보여 왔
다. 현재 호남정유, 신동 등 우리나라의 대·중소기
업 370여개 업체가 진출하여 두 나라 간의 경제협
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유력한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
가 전 카리모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
로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

로운 대통령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omonovich
Mirziyoyev, 1957년 생) 체제에서도 카리모프 전 대통
령의 친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무
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의 세법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부
가가치세 세율이 20%(한국 10%)로 높은 편이지만,
이 나라의 법인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이 14.9%
로 한국 24.2%, OECD 평균 25.3%, 세계 92개
국 평균 25.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투자
하기 좋은 세제(稅制)를 갖추고 있다. 다만, 한계유
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이 49%로, 한
국 24.1%, OECD 평균 17.7%, 세계 92개국 평균
18.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 세법상의 공제·감면제도
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약 18만 명(중
아시아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48만
명)으로 CIS내 최다국가에 해당되며, 현재 상·하
원 250의석 중 고려인 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생활상

우즈벡 지역은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상업도시의 발달과 여러 차례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130여개의 민족(우즈벡족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카자흐인 3%, 카라칼팍인 2.5%, 고려인 1%)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주민의 88%가 무슬림이며, 이 중 70%가 수니파이다. 원래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8세기 경 이슬람 제국의 침략으로 이슬람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소수이지만 기독교 등 다른 종교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이 석유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 유목민들로 목축업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에, 우즈벡 민족은 실크로드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富)를 가장 많이 축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카자흐 속담에 “우즈벡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서도 장사를 할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은 일찍이 상업에 눈을 돌리는 한편, 농사도 지으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1937년 가을 스탈린은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 2,500여명을 체포하여 대부분 처형하였으며, 연해주 지역에 모여 살던 고려인들을 갑자기 시베리아 행 열차에 태워 가는 곳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이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내버리듯이 강제 이주시켰다. 1937년 10월말까지 강제이주 완료된 고려인 수는 176,481명(1차 171,781명, 2차 4,700명)이며 (그

중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인원수는 76,525명),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숙청, 기근, 질병 등으로 사망한 자가 9,500명에서 25,000여명으로 추산할 뿐 얼마나 희생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강제이주 후 54년이 지난 1991년 구 소련연방체제의 붕괴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 민족주의 국가로 독립하자,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고 민족감정이 노골화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려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마련한 터전을 버리고,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강제이주 전에 살았던 연해주로 되돌아갔으며,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고려인들은 그대로 남아 고려인으로서의 강인한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해외의 한인(韓人)이 겪은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상처이자 결코 지울 수 없는 통한(痛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 타쉬켄트시에는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민족(韓民族)의 자긍심 고취와 강제이주한 고려인의 애환을 달래 주기 위해 2012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 5월 준공한 타쉬켄트 ‘서울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전 지역 고려인이 참가하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행사”가 9월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고, 한국에서는 9월 17일 국내 체류 고려인들이 안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진다.

고려인 강제이주 기념행사가 시작된 것은 1997년이다. 193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애환을 되돌아보고, 체험하는 뜻에서 “회상의 열차” 행사를 9박 10일 동안, 60년 전에 고려인들이 갔었던 그 슬픔의 기차길을, 그 분들의 혼을 달래며 행사를 가졌었다. 고(故) 이광규 한 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사장 등 관심 있

는 한국인(집행위원장 :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과 고려인 대표 등 150여명이 이 행사에 참가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쉬켄트까지 기차로 가고, 비행기로 모스크바까지 가서 당시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의 “고려인 명예 회복 등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분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 기념행사”는 국내외에서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또한 연해주의 고려인들의 혼을 되살려주고 이국땅에서 당한 울분과 애환을 위로하고 자긍심을 지키기 위하여, 1997년 (사)해외한민족연구소(소장 이윤기, 이사장 박관용)는 고려인들이 강제이주하기 전에 살았고,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초기 활동 근거지였던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한국에서 구하고, 다듬고, 운반된, 한 자의 글씨도 없는 세 개의 거대한 돌로 ‘신한촌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이 기

념탑은 지금도 묵묵히 신한촌을 지키면서, 글씨로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슬픔을 말해주고 있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되었던 고려인들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발해의 근거지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 문화회관이 세워졌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독립운동과 강제이주의 고난을 되새기고, 고려인 후손들이 학습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설립 시부터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고(故) 이광규 교수께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시절 이부영, 도재영, 박의근 등이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건립위원회”를 2004년 발족시키고, 고문으로 수락하신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2005년 7월 10일 기공식에 축시(祝詩)를 내려주셨다. 지금도 김 추기경님의 시(詩)가 사진과 함께 ‘고



망국(亡國)과 유민(流民)의 한백년
새로운 세기의 동트는 이 옛뜰에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백두산 밀림 이루듯
고려인들의 보금자리 등지를 틀다

2005. 7. 10.

추기경 김수환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고 문 : 강원용 김수환 김지하 서영훈 이광규 장치혁
추진위원장 : 이부영(상임) 강영석 고진화 김명혁 김정련 도재영 박의근 이화영 조규향
상임위원장 : 이용선 김봉준 김호준 사 무 국 장 : 강경주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기공식 축시 사진

참 많은 분들이 해외의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정신이고 철학이고,

또한 진정한 동포사랑이라 생각한다.

려인 문화회관' 로비 중앙에 전시되어 있다.

“망국(亡國)과 유민(流民)의 한백년
새로운 세기의 동트는 이 햇빛에
마를일 라시 살아나 백두산 밀림 이루어
고려인들의 보금자리 동지를 돌아.”

공사 진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뜻있는 분들과 나라에서 힘을 집결하여 2009년에 ‘고려인 문화회관’(2층 건물: 병원, 한글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역사관, 다목적 공연장 등)이 건립되었다.

우리 운동본부에서 2014년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행사 때 이곳을 방문했고, 건립 기금을 조금이라도 낸 분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관 로비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해외의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정신이고 철학이고, 또한 진정한 동포사랑이라 생각한다.

또한 2014년 완성된 서울공원에 금년 7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2017년 7월 3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제목: “우즈벡 서울공원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비 세워

진다”)에 따르면, 이 기념비에는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즈음하여 고려인들을 따뜻한 친구로 맞아준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글귀가 한국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로 새겨져 있다. 보도자료 제목과는 달리 기념비에서 ‘강제이주’의 의미는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비’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탐방 일정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방문단(박의근 회장, 전영섭 변호사, 김명수 회장, 김용구 회장, 박경명 회장, 김성열 부회장, 김제방 회장, 이향구 대표세무사, 필자 등 9명)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 대회 개막식 참석과 강제이주 80주년을 맞는 고려인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5박 7일 일정(2017.8.8.~8.14.)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우즈베키스탄 첫날(8월 9일) 오전

첫날 아침 아프라시압(Afrosiyob) 고속열차(최고시

속 220km)로 타슈켄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마르칸트까지 이동하여, 김용구 회장(제22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제18대 국회의원 역임)이 텅스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동리소스를 방문하였다.

신동의 김용구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텅스텐 개발 사업은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거대한 해외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동은 우즈베키스탄 나보이주 사우트 베이 지역에 매장돼 있는 텅스텐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공인기관을 통하여 14,300m까지 시추한 결과 추정 매장량 1,700만t에 함량이 2.3%로 분석되어,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3년 신동은 이미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자원위원회와 합작으로 ‘Uzbekistan-Korea Tungsten’을 설립하여(신동 51%, 우즈베키스탄 49%) 본격적인 채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지질자원위원회 보부르(ISLAMOV Bobur Farhadovich, 34세) 위원장(장관급)이 8월 10일 우리 방문단을 위한 만찬장에서 신동이 추진하고 있는 텅스텐 광산의 매장량은 세계 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제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정도로 자원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선진국의 자원전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뛰어든 것은 신동이 처음이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면서 줄곧 51% 지분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느 기업도 성공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외 민간 기업과 자원개발 합작사를

세우면서 신동에게 지분 51%와 경영권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첫날(8월 9일) 오후

수많은 유적지로 덮여있는 고도(古都) 사마르칸트(Samarqand,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도시’라는 의미)는 ‘동방의 진주’, ‘이슬람 세계의 보석’, ‘푸른 돔의 도시’ 등 다양한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실크로드의 낭만적 도시로 자리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의 주요 기념물인 ‘울루그 베그 천문대’를 비롯해, ‘비비하눔 모스크’(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원으로 티무르*가 왕비 비비하눔을 위해 건설한 사원), ‘샤히진다’(이슬람교도 및 귀족들이 묻힌 공동묘지로 ‘살아있는 왕’을 의미) 묘역과 티무르의 손자이자 후계자인 무함마드 술탄(1403년 이란에서 전사)을 기리기 위해 세운 ‘구르 에미르’(Gur-Emir, ‘지배자의 묘’를 의미) 묘(廟)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구르 에미르’는 티무르가 아끼던 손자 무함마드 술탄의 능묘(陵墓)로 삼기 위해 1403년에 짓기 시작했으나, 1405년에 결국 티무르 자신도 당나라 원정 도중 전사(戰死)하여 무함마드 술탄, 두 번째 손자인 울루그 베그, 아들인 샤 루흐와 미란 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그의 스승 미르 사이드 바라카와 나란히 묻혔다.

‘구르 에미르’ 묘에 있던 티무르의 검은돌로 된 관 속에는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올 때, 가장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어 아무도 관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1941년 6월 19일 소련의 조사단에 의해 처음으로 개봉되어 티무르의 다리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

* 티무르(Amir Timur, 1336~1405)는 중앙아시아의 몽골·투르크계로 징기즈칸 이후 이슬람에 복속되었던 중앙아시아를 재건한 영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해방자’라는 이름으로 추앙받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었으나, 그 일이 있은 지 3일 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바르바로사(Barbarossa) 작전이 벌어져 이것이 소련에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단이었다. 후에 두려움을 느낀 소련에 의해 티무르의 관 뚜껑이 납으로 용접되어, 이후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다.

사마르칸트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진과 외세의 침략 및 러시아의 파괴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아직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 유적지를 보존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티무르의 고향 샤흐리 샅스에 있는 악사라이(Aq Saray) 궁전의 정문에 새겨진 “만약 너희들이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싶거든, 우리의 건축물을 보라.” 라고 한 티무르의 말은 허세로 나온 말이 아닌 듯하다.

특히 1965년 발굴된 7세기 후반의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Varxuman)의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의 사행도(使行圖)에는 각국의 사절단이 입조하는 채색 벽화의 한쪽에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환두대도

(環頭大刀)를 착용한 채 공수(拱手)를 한 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그 용모와 복장으로 보아 이들이 고구려 또는 신라에서 파견된 사절단이라고 하니, 우리와 우즈베키스탄의 우호관계는 아주 오래 된 듯하다.

저녁에는 박의근 회장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보드카, 와인, 맥주 등을 곁들인 만찬으로 여행에서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디저트로 나온 멜론과 수박의 맛 또한 일품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강수량(降水量)은 적지만, 지하에 빙하의 물이 녹아들어 흐르고 일조량(日照量)이 많아 과일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어, 어디를 가든 역시 ‘과일천국’이라 할 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우즈베키스탄 두 번째 날(8월 10일)

이 날은 티무르 박물관 등 타쉬켄트 시내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자원위원회 보부르 장관 주최 만찬장에서 (2017.08.10.)

소련연방체제의 붕괴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의 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 제국의 역사를 전면에 부각시켜 이슬람 민족국가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티무르 박물관(1996년 개관)과 나무가 울창한 광장을 둘러보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티무르를 영웅으로 받드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은 이곳에서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고려인 중 상당수는 이곳에서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연해주로 다시 이주해야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

저녁에는 한국의 지질학자로서 국가지질자원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김상엽 박사와 당당국장의 안내로 우리 방문단 일행은 우즈벡 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구롬존 이브라지모프(Gulomjon I. Ibragimov) 부총리와 국가지질자원위원회 이슬람 보부르 하이도비치(ISLAMOV Bobur Farhadovich) 위원장(장관급)이 주최하는 만찬장에 도착하여 환대

를 받았다.

만찬장을 보면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손님 접대할 때 먹고 남는 음식이 많아야 제대로 손님 접대한 것으로 생각하던 풍속이 여기에서는 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빨롭(우즈베키스탄 볶음밥)을 꼭 먹어보아야 한다는 보부르 장관의 말에 맛이 좋아 먹긴 했지만, 너무 배불러 몇 수저 뜨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의 만찬장에서 34세의 젊고 유능한 보부르 장관은 차세대 지도자감답게 개방된 사고방식과 시원시원한 언변으로, “신동 김용구 회장의 텅스텐 광산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광산으로 2년 내에 채굴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지원약속과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바란다”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밝혔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보부르 장관은 이날 만찬장에 나온 수박과 멜론은 페르가나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한(駐韓) 우



프레지던트 컵 태권도대회
개막식장에서 (2017.8.11.)



우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장 겸 국세청장 주최 만찬장에서 조정원 총재, 박익근 회장, 파르피예프 장관, 체육부 장관 등 (2017.8.11.)

즈베키스탄 비탈리 편(Vitali Fen) 대사가 보낸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비탈리 편 대사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출생의 고려인 2세로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며, 주한 대사로 18년간 근무 후 2013년 귀국하였다가 2017년 6월에 다시 주한 대사로 부임하였다. 또한 대사로 임명되기 전 복싱 헤비급 선수로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당시 박익근 회장과 인연을 맺은 이래, 비탈리 편 대사와 박익근 회장은 지금까지 형제지간 이상으로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우리 운동본부의 방문단 행사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우즈베키스탄 세 번째 날(8월 11일)

8월 11일 오전에는 타쉬켄트 시내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를 둘러보았다. 특히 ‘무이 무보라 메드레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코란을 소장하고 있으며, 1531년에 세운 ‘바

라크 한 메드레세’는 우즈베크 전통 건축물로 규모는 작지만 예술적 가치는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날 오후 5시에 우리 방문단 일행 모두 우즈베키스탄 유니버설 스포츠 센터에서 아시아 지역 26개국 선수 620명이 참가하는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조정원) 프레지던트컵 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대회 개막식에는 조정원 총재,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로주쿨로프 우르그베크(Rozukulov Ulugbek), 체육부 장관 쿠르바노프 루스탐베크(Kurbanov Rustambek), 우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장 겸 국세청장 파르피예프 보티르 라크마토비치(Parpiev Botir Rakhmatovich), 우리 운동본부 방문단 9명과 각국 대표단 및 선수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조정원 총재는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전달하였다. 마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오는 10월부터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에 태권도학과를 최초로 개설했다고 밝히는 등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태권도협회장을 겸직하는 파르피에프 장관(우즈벡에서는 국세청장이 장관급임)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파르피에프 장관은 2012년 4월 국세청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때 국기원을 방문하는 등 태권도에 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 바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이자 우리 ICKC 총재이신 조정원 총재께서는 이번에 타쉬켄트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타쉬켄트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으며 태권도의 위상을 또 한 번 크게 드높였다. 조 총재의 숨은 외교 역할과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가 감동하고 사랑하는 한국의 태권도를 격상시키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총재 비서실장 강석재 님께서는 우리 운동본부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국제행사로 바쁜 중에도 우리 방문단을 일일이 챙겨 주고, 이번 행사 진행과정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매우 크셨다.

개막식에 이어 유니버설 스포츠 센터 연회장에서 우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장 겸 국세청장 파르피에프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이 이어졌다. 로주쿨로프 우르그벡 부총리, 쿠르바노프 루스탐벡 장관, 각국의 태권도 협회장들과 우리 방문단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헤드테이블에는 조정원 총재, 부총리 및 파르피에프 장관, 박의근 회장과 김용구 회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여흥이 시작되자 한국노래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유명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모두를 즐겁게 했으며,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네 번째 날(8월 12일)

이 날은 매우 뜻 깊은 행사로서 우즈벡 방문의 목적이기도 한, 고려인 마을로 유명한 ‘김병화(1905~1974)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김병화 씨는 1937년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



김병화 박물관의 김병화 동상 앞에서 묵념 (2017.8.12.)

한 고려인으로, 구 소련시절 그의 높은 식량 생산성, 탁월한 지도력과 근면성이 높이 평가되어 두 번의 노동영웅 칭호(1948년과 1951년)를 받은 집단농장(콜호즈)의 지도자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치가로도 활동한 가장 유명한 고려인이다. 그는 1937년 10월 강제일차에 실려 갈대만 무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의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상태에서도 갈대와 흙으로 온돌옻막집을 지어 추위를 이겨내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사방에 물길을 만들고, 연해주에서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온 법씨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우즈베크 사람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쌀을 공급하였으며, 물고기 잡는 방법 등을 전수하였다. 그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쓸모없는 땅을 옥토(玉土)로 개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량미(軍糧米)를 공급하였으니, 러시아 정부가 그에게 최고의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병화 씨 사후(死後)에 그의 이름을 붙인 '김병화 농장'은 타슈켄트 외곽에 있으며 지금은 협동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80년 전의 강제이주를 생각하면서 농장 내 기념관과 그의 동상 앞에 들어서자, 방문단 일행 모두 숙연한 마음이 되어 묵념을 올렸다.

김병화 박물관을 관리하는 태엠마 씨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김병화 농장의 전체면적은 1,700만평(서울의 강남구 전체 면적 1,296만평보다 넓음)으로 그 중 물 공급이 가능한 면적은 950만평이며, 파종면적은 630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협동농장으로 7,828명의 거주주민 중 고려인은 1,543명이며, 목화·밀·쌀·전규(황마대용작물)·채소 등을 경작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이 공교롭게 김병화 박물관의 관리인 태엠마 씨의 생일(1940.8.12.생)이어서, 방문단 일행이 박물관 발전기금과 함께 생일 축하선물을 전달하였다.

저녁에는 김용구 회장께서 마련한 만찬으로 방문단 일행과 김상엽 박사와 함께 침간산 물이 녹

아서 흐르는 뻥따꼬르 인공폭포 옆 샤르샤라(SHARSHARA) 레스토랑에서 흥겨운 저녁식사시간을 가졌다. 뻥따꼬르 인공폭포 주변은 우즈베크 사람들의 휴양지로 이용될 정도로 여름인데도 서늘하였다. 시원한 물소리도 좋았지만, 야외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식당을 찾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히잡(Hijab)을 쓴 여인까지도 어울려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GDP수준은 낮을지 몰라도(2015년 현재 1인당 GDP \$2,129)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 세대의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에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다섯 번째 날(8월 13일)

마지막 날 우리 방문단은 바쁜 중에도 동행한 김상엽 박사와 함께 타슈켄트에서 70여km 떨어진 천산산맥(天山山脈)의 끝자락에 있는 침간산(3,309m)을 향하여 버스를 타고 가면서, 풀 한포기 없는 황량한 산과 강, 푸른 초원이 공존하는 농촌 풍경, 에텔바이스 등 야생화와 함께 빙하가 녹아든 차르빅 호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침간산 자락에서 차르빅 호수에 이르는 산비탈에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맑아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휴양지답게 별장들이 많았으며, 침간산 정상에는 아직도 곳곳에 잔설(殘雪)이 남아 있었다.

침간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하여 만든 천연 스키장이 있어 1,800m 고지의 전망대까지 2인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산(靈山)으로 불리는 침간산 전망대 주변의 철망 담벼락은 온통 천으로 어지럽게 묶여 있었다. 이곳에도 우리나라의 태백산 무당골처럼 소원을 빌면서 철조망에 자신이 사용하던 천을 매달아 놓고 그 천이 없어질 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는 나라인지라 차르빅 호수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름 더위를 피하여 윈드서핑,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등의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으며, 침간산의 고산지대 마을에서는 얼굴 모습이 특이한 원주민(주로 카자흐족)들이 야생화에서 채취한 100% 천연 벌꿀(우즈베키스탄에서는 꿀보다 설탕의 가격이 더 높아서 꿀에 설탕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함)을 판매하고 있

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유황온천장(메르시아 호텔)에서 온천욕과 함께 유황오리 백숙을 맛있게 먹었다. 이 날 저녁식사비용도 김용구 회장이 부담하셨다.

한편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여행가이드는 고려인 4세인 김율리나 씨가 맡아 안내는 물론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한국어 통역까지 담당하여 여행의 불편은 없었다.



천산산맥 침간산 전망대에서 (2017.8.13.)

교토 한국 아줌마의 한국어 이야기



김 영 희

일본 교토 한국어 강사

일본 교토에서 대학을 마치고 평범한 주부로 살던 중,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나에게도 불어왔다. 동네 몇몇 일본인들로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후 한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도 맡게 되면서 나의 한국어 교육 영역이 넓어지며 어느새 10년을 채워간다.

처음 맡게 된 고등학교는 '하나조노 중고등학교'로 교토 시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는 사립고등학교 네 곳 중 하나이다.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 지식과 교수법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경희사이버대학에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마치고 한국어문화학과를 졸업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더욱 다양한 곳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토요 어린이 한글학교의 귀여운 초등학생들부터, 하나조노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제학원 중등학교에서 만난 중고등학생, 그리고 80세부터 한국어를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 중인 93세의 일본인 학습자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교토라디오방송 출연을 통해 한국어를 알리는 일도 하였다. 한국인이 없었던 교토의 작은 동네에서 한국어 교사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면서 한국어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고 나의 자존감이 되었다.

'하나조노 중고등학교'

드라마 열풍에서 꺾일 듯 보이던 한류는 K-POP의 열기가 이어진 덕분에 한국어는 인기 있는 선택과목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4년 전부터 입시를 위한 학교방침이 바뀌면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은 한정되고 수업 시간도 줄었지만, 매년 30명 전후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학기는 한글 자모수업을 주로 하면서 인사말, 자기소개, 숫자 등의 어휘 학습을 하고, 2학기에는 한국영화, 노래, 옷놀이, 한복입고 절하기, 색종이로 한복 접기, 간단한 한국음식 만들기 등 조금이나마 한국 문화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필요한 간단한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당장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대학에 가서도

한국어를 선택하여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토의 한글학교’

교토에는 14곳의 한글학교가 있다. 나는 그 중 사쿄 한글학교와 국제학원의 한글학교, 교토 시, 한국민단, 조총련에서 운영하는 메아리 한글학교. 이렇게 세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한글학교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성인학습자들로 일본인 여성 학습자들이 많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드라마를 자막 없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한국 여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회화를 위해서 듣는 학생과 단기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토요 한글학교’

이곳은 재일동포, 유학생 등 한국에서 온 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성인들이 다니는 한글학교와는 다른 성격인, 자신이 한국계임을 알기 위해 다니는 정체성 교육의 장이다. 자녀의 뿌리 교육을 위해 원거리도 마다 않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학부모의 한국 사랑과 노력에 고개를 숙이게 되며, 해맑은 눈빛으로 한글을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인재들이 커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정성과 후원이 필요한 학교이다.

‘교토KBS문화센터’와 ‘교토한국어교류 교실’

최근에는 교토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이 꽤 많다. 주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혼으로 교토에 정



한국음식 만들기 수업 (국제학원중고등학교)



라디오한국어교실

착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교토KBS문화센터에서 입문반, 초급반, 중급1~2 이렇게 네 개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토한국어교류교실이라는 개인 한국어 교실도 있는데, 그룹 또는 개인 레슨으로 현재 11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나조노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파견 출장 수업과 초등학교 국제교육수업으로 한 해 평균 5~7번의 일일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한국어 교육 덕분에 맺게 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며 자연스럽게 생긴 책임감은 부족한 나를 끊임 없이 채찍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곳의 학습자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마침 전주에서 재외동포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통문화 연수가 실시되어 10일 간의 연수를 받고 왔다. 처음

접하는 소고춤, 탈춤, 부채춤, 사물놀이 등을 배우며 이를 한국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하여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으며,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습자들이 즐겁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알아 나가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 교토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소통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가깝고 즐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을 향해 “안녕하세요!”를 힘차게 외친다.



어린이 토요일학교 수료식



스승의 나라, 태권도 종주국 한국



마르코 이엔나(Marco Ienna)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를 뿌리부터 배우고 싶어 어린 나이에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와서 외국인 최초로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했다. 한국은 내게 스승의 나라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운 나는 언젠가는 꼭 태권도 종주국, 스승의 나라인 한국을 가고 말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것이다.

일곱 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간 로마의

작은 태권도 도장(Monopoli di Stato)에서 처음 흰 도복에 흰 띠를 댔을 때 나는 태권도가 한국의 무도(武道)인지를 몰랐다. 그냥 또래 아이와 대련하는 게 재미있고, 생소한 동작의 품새를 알아가는 게 신기하고 흥이 났고 절도 있는 동작들이 멋있어 보였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을 강조하는 태권도의 정신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태권도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다. 한국 대사관의 홍보자료도 찾아보고 한국인과 친분도 맺었다.

한국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였으며 내 나라 이탈리아의 3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무도 태권도를 전 세계에 전파해 현재 208여 개 회원국과 8,000여 만 명의 태권도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설득했고, 혼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꿈을 향했다.

2005년 5월 6일 안개 자욱한 인천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나를 맞이한 한국의 냄새는 생소함보다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숙함에 가까웠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다는

* 마르코 이엔나(Marco Ienna) 1984년 이탈리아 로마 출생.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 수련. 2006년 외국인 최초로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해 2010년 외국인 최초로 졸업. 현재 경희대 태권도 박사과정 수료 예정.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근무.

계획보다는 무작정 태권도를 뿌리에서부터 배우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찾아갔다.

그러나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나에게 언어는 너무나 큰 장벽이었고 그때부터 8개월간 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며 공부한 후,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외국인 최초로 정식 입학할 수 있었다.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태권도 실기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태권도라는 학문을 통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로서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엘리트 선수들과 같이 땀을 흘리면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로 한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도복의 흰 바탕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모든 기술용어나 품새 명칭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태권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언어와 얼과 역사를 아우르는 한국의 문화이자 훌륭한 관광 상품이다. 더욱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외국인 수련생 대부분은 스승의 나라 한국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 나 또한 김치찌개와 삼겹살, 청국장과 떡을 즐겨 먹는다. 한복의 고운 색과 선을 좋아하며, 넉넉하고 포근한 한국의 산과 강과 한옥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태권도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한국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단순한 신체의 단련뿐 아니라 정신수양을 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무도다. 이렇게 소중한 태권도가 정작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는 너무 보편화 돼서인지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동네 태권도 도장 중에는 어린이 위락시설처럼 낙후된 곳이 많아 한국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나의 꿈은 이탈리아 대학에 태권도 학과를 개설하여 태권도의 기술체계뿐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전문지식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 경희대 태권도학과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박사학위 논문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학교 시절 한국어도 더욱 잘하고 싶어 복수전공으로 한국어학



국기원 사범교육 수료식에서

과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사 자격증도 땀지만, 한국인의 내면에 깔린 근본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나에게 두 번째 행운이 찾아왔다. 그 첫 번째는 2006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순간이었고, 두 번째는 대학 졸업 후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 때부터 태권도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었고 행정가로서 5대륙을 다니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조정원 총재님의 바른 리더십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해외출장을 다니며 매번 느끼는 것으로 태권도는 이미 외국에서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 올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만 183개국에서 1,753여 명이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전 세계에는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외국인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지원한다면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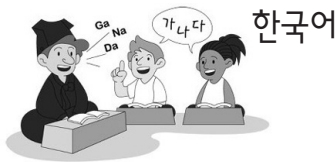
□□□□□□



아디다스(Adidas)사의 태권도용품
홍보 모델 활동 당시



태권도 국제대회
최우수 선수상 수상 모습



2박 3일간 ‘2017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성료 ...

대회 마지막 날, 세종학당 2017년 신규 선정된 6개소에 지정서 전달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이하 재단)에서 주최한 ‘2017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7월 21일(금)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6개소 지정서 전달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 400여 명이 참석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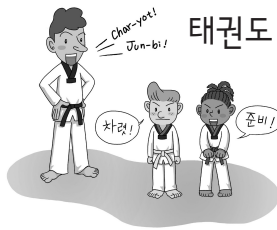
7월 18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 매듭을 풀고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문화포럼이 진행됐고, 이튿날은 한국어 교수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3일차에는 9: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6개소를 대상으로 한 지정서 전달식이 이뤄졌다. 신규로 지정된 세종학당은 러시아 아스트라한, 미국 테러호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옌청, 캄보디아 프놈펜 6개소다.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은 대회를 마치며 “이번 대회가 해외 한국어 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_ 재외동포신문, 2017.07.21.



2017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폐막식



우즈베크 대통령, 태권도 명예9단 ... “국립대 태권도학과 개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조정원 연맹 총재가 8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과 태권도복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총재는 11일부터 13일까지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지역 세계태권도연맹 프레지던츠컵 참관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예방 자리에서 “조정원 총재의 부친이자 전 경희대 총장인 고(故) 조영식 박사가 ‘유엔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조 총재가 국제스포츠계에서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과 평화 정신 실천 노력을 인정해 조정원 총재에게 타슈켄트 명예 시민증과 우즈베키스탄 국립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립대 학교에 태권도학과를 최초로 개설해 올 10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체육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태권도를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원 총재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지역 태권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난민 및 보육원 지원 프로젝트인 ‘태권도박애재단’에 관해 설명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에게 명예 9단증을 수여한 바 있다.

출처_ 연합뉴스, 2017.08.11.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左)을 예방한 조정원 세계태권도 연맹 총재

■ 비탈리 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초청, 부임 축하 모임 가져

ICKC는 지난 6월 13일(화) 롯데호텔에서 주한 우즈베키스탄 비탈리 편 대사를 초청하여 부임 축하 모임을 가졌다. 고려인 2세인 비탈리 편 대사는 이번에 두 번째로 주한 대사에 부임하는 것으로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하겠다. 박익근 ICKC 재정위원장의 주례로, 전영섭 감사 및 강석재 운영위원(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과 ICKC 재정위원인 강성구, 김용구, 김제방, 위호인, 조춘연, 정현관, 최 광 남께서 함께 참석하였다. 비탈리 편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양국의 한국문화와 태권도 교류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ICKC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명예9단증을 수여하는 한편,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컵 아시아선수권 대회'에도 참여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또한 거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비탈리 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부임 축하 모임

■ 6월 문화탐방 실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안산자락길

지난 6월 22일(목), 6월 문화탐방으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안산자락길(둘레길)을 탐방하였다. 독립문역사공원에 모인 회원들은 안산자락길 산행에 앞서, 독립문역사공원 한 칸에 마련된 현충사에서 순국선열께 우선 참배를 드렸다. 이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서, 비참했던 당시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마다 한 장을 차지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탐방하였다. 이후 안산자락길을 탐방했다. 약 7km에 이르는 길이 데크(deck)로 꾸며져 누구나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편한 길이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 수준을 실감하면서, 신록을 만끽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답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지고 한국문화 교류의 의의를 되새겨 보았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 ‘2017 흥천 마리소리 여름축전’ 성황리에 마쳐

매년 여름 강원도 흥천 마리소리골에서 치러지는 ‘흥천 마리소리 여름축전’이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마리소리 여름 축전은 8월 5일~6일 1박 2일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올해는 “자연과 사람과 소리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국악 및 퓨전음악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참가하여 멋진 축전을 만들었고, 우리 멋 겨루기 대회 등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 및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많은 인원이 축전에 참석하였고, 매년 축전을 후원하고 있는 ICKC에서도 여러 회원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제를 즐겼다.

■ ‘이병욱과 어울림’ 루마니아 현지 공연 후원

지난 8월 14일, 세계적인 문화 축제인 루마니아 “Graf-Art 2017”의 ‘한국의 날’ 행사에서,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한국을 대표하여 우리 전통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이병욱과 어울림’은 국내의 대표적인 전통음악 공연단체로서, ICKC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전통음악의 융성과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자리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공연의 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ICKC에서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었다.

■ 우즈베키스탄 해외역사문화탐방 뜻 깊게 마쳐

지난 8월 8일(화)~8월 14일(월), ICKC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컵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여 태권도의 국제적 교류를 진작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ICKC 총재이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인 조정원 총재 및 세계태권도연맹 강석재 비서실장 그리고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정위원 9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 이번 해외 역사문화탐방에서, ICKC의 구성원들은 8월 11일 태권도대회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 고려인 마을을 방문하여 고려인 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등 다채롭고 뜻 깊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한편 본 탐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획되었던,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행사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태권도와 고려인 동포의 삶 등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한편, 한국의 위상 및 한국과 우즈베크 양국의 친선도 함께 도모했던 뜻 깊은 탐방이 되었다.



‘1st President's Cup-Asian Region’(Tashkent) 참석(2017.08.11.)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7.03.30. 총회 및 창립 6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교수

부회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김옥랑 꼭두박돌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인 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Съезд посвящённый 8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и обновлению особого закона о статусе корёсарам

고려인특별법 개정, 고려인정착법 제정을 위한 고려인대회

СПОЁМТЕ ВМЕСТЕ КОРЁАРИАН!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Дата, время 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17сентября 2017,

15:00-20:00, г. АНСАН,

ПАРК «ХВАРАНЮВОНДЖИ»,

ОТКРЫТАЯ СЦЕНА,

САЙТ: http://tour.iansan.net/tour/sightseeing/05_1.jsp

2017. 9. 17(일) 15: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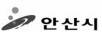
경기도안산시 화랑유원지 야외원형극장

Организатор 주화주관

Ассоциация по продвижению съезда корёсарам,
посвященного 80-летию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고려인강제이주 80년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Спонсор 후원



Мэрия г. Ансан,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문의 031-493-7053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Круглый Стол Корёсарам

고려인타운홀 미팅

Мемор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енная 8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ёсарам

강제이주 80년 기념식

Памятный Концерт «КОРЁАРИАН»

고려아리랑 기념공연

Исторический экскурс

고려인강제이주와 유라시아 역사체험

История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연해주 독립운동사 참여코너

Дегустация блюд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корёсарам,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Азии

고려인, 아시아, 한국음식문화 체험

Народные песнопения. Ярмарка.

Народные совместные игры и конкурсы

장기[자랑, 체험과 참여코너, 민속놀이, 대동놀이]